

박지혜 바이올리니스트 'AI퍼포머' 공연

“바이올린 선율과 어우러진 로봇 군무 ‘장관’ AI·예술 접목 융복합 장르 꾸준히 도전할 것”



AI 로봇 및 메타버스 기술을 클래식 연주에 접목한 'AI퍼포머'가 있다. 국내 최초로 세계적 인...

독일에서 태어난 박 교수는 독일 칼스루에 국립 음대 및 동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타트업...

박 교수는 17~19일 '2024 REVIVAL 국제 컨퍼런스' 공연을 UN총회 메타버스 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AI작곡 프로그램을 활용...

광주 활동도 이목을 끈다. 2021년 광주디자인 국제비엔날레 개막식에서 베토벤 미완성곡을 모티프로 창작한 '인공지능 소나타'를 AI 피아노와...

박 교수는 "우리 사회는 AI가 전례 없던 것까지 창조할 수 있는 생성형 AI시대에 도래했다"며 "인류가 AI 예술작품을 어떻게 활용하고 가치를 창조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대"라고 운을 폈다.

그는 직접 만든 AI 로봇(알파1프로) 100대와 함께 다양한 공연을 펼치려 왔다. 바이올린 선율에 맞춰 코딩된 안무를 선보이는 로봇들의 군무는 장관을 연출한다.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 LED 조명을 켜는 로봇을 보면 한편으로 귀엽다는 생각이 떠오른다. 그

GIST 겸직교수·연세대 겸임교수 'REVIVAL 국제 컨퍼런스' 공연 17~19일 UN총회 메타버스 회의실

래서인지 박 교수는 자신의 피조물(로봇)을 '아이들'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곤 한다.

박 교수는 "AI, 메타버스 기술을 확장해 작년에는 '클래식 전용 메타버스 공연장'을 개발했고, 정식 공연장 등록까지 마쳤다"고 한다. 그는 '페스티벌-K클래식 360도'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스트리밍도 진행 중이다. AI 로봇들의 예술 향연을 360도 전방위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설계한 공연이다.

만일 AI기술이 자의식을 갖고 행동한다면 어떻게 대응할지 물었다. 박 교수는 "재미있는 질문인데, 챗GPT 4.0등 비약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를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아니다"며 "애초에 설계를 잘해야겠지만 일단 전원 버튼부터 찾게 될 것 같다"는 위트 있는 답변을 들려줬다.

기술 혁신을 통해 성공가도를 달려온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코로나19 당시 무대도, 청중도 없는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며 아트 퍼포머로서 '근간'이 흔들리는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위기를 겪고 나자 공연 실연 외에 이렇다 할 산업이 전무했던 '공연산업계'의 현주소가 눈에 들어왔다. 엔데믹 이후 새로운 예술에 대한 고민을 거듭하다가 '아트테크'라는 활로를 개척했다. 이후 광주과학기술원 한국문화기술연구소에서 겸직 교수를 맡으며 기술 융복합 공연에 본격적으로 눈을 떴다.

통합 800만 조회수를 기록한 TED talks 강연

에 대해서도 물었다. 10여년 전 우연한 기회로 진행했던 강의 주제는 '당신의 삶을 연주하세요'. 바이올린이 예술의 수단에 그치지 않고 삶까지 탄주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박 교수는 "TED 강연을 진행하기 전에는 클래식 애호가들을 위한 정형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의 삶을 살았다면, 강연 이후에는 과학기술에 전착하는 '예술 스토리텔러'로 바뀐 것 같다"고 했다.

한편 AI 기술 발전이 광주 예술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했다.

박 교수는 "르네상스를 맞이한 K-POP 시대 이전에는 활기가 있었던 K-클래식 시대가 존재했음을 기억해야 한다"며 "광주에서도 발전된 기술을 활용한 AI 공연들이 많이 등장하고 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가 생각하는 '아트테크'란 구수한 장맛처럼, 오래 곱삭으며 제 가치를 발하는 것이다. 단기간 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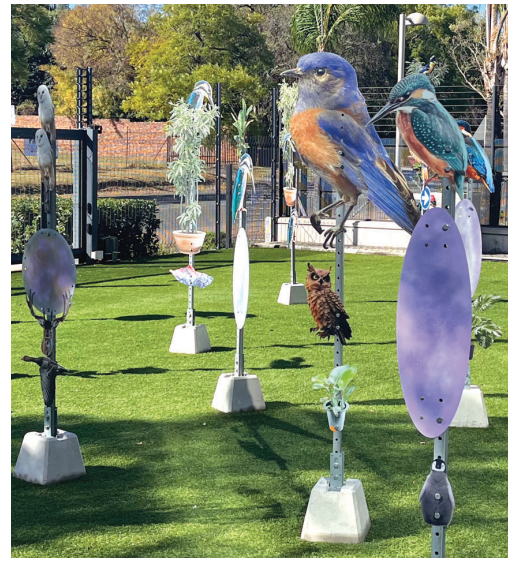
자 등으로 광주가 아트테크의 성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지역 예술계와 음단에 활력을 불어넣는 매개가 될 거라는 생각이다.

한편 박 교수는 2011년 카네기홀 시즌 개막 주간에 한국인 최초로 독주회를 펼친 바 있다. 독일 정부로부터 세계 3대 명가로 손꼽히는 가르네리(바이올린)를 무상 지원받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에 진력하고 있다.

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박지혜의 음악채널'도 눈길을 끈다. '바이올린 배우기의 모든 것'이라는 테마로 메타버스 퍼포먼스, AI기술 등에 대해 자신만의 노하우를 쉽게 풀어내고 있다.

박 교수는 "앞으로도 AI 산업, 예술계, 학계 등을 오가며 융복합 장르에 도전하고 싶다"며 "광주 클래식계도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공연을 열린 마음으로 맞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남아공 전시 장면인 염아롱의 '움직임의 징후' (ACC재단 제공)

ACC 재단 '콘텐츠' 세계에서 호평 이어져

영국서 현대무용 '척' 공연 남아공서 '반디산책' 전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이 영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 유통한 공연과 전시가 호평을 받았다.

ACC재단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영국 런던 더플레이스 극장과 맨체스터 라우리 극장에서 현대무용 '척'을 공연했으며 지난 3일부터 8월 30일까지 주남아공한국문화원에서 '반디산책' 전시를 진행 중이다.

먼저 주영한국문화원과 협력사업으로 진행된 현대무용 '척'은 유료공연 4회차 모두 전석 매진 사례를 이뤘다.

이번 영국 공연에는 현대무용계를 대표하는 안예순 안무가를 주축으로 고블린피티 안무가 지경민, 실력과 안무가이자 무용수 한상률, 한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주목받는 무용수 이수주, 차세대 현대 무용수로 각광 받는 박유라, 김도현, 도운수 등이 참여해 무대를 빛냈다.

한국 전통 무용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한 안무와 최고 기량을 자랑하는 무용수 6인의 독특한 움직임으로 구현된 무대에도 관심이 쏠려왔다.

크리스티나 엘리엇 러던 더플레이스 극장 공연 책임자는 "아시아성을 반영한 완성도 높은 ACC 컨템포러리 무용을 초청할 수 있어서 영광이다"면서 "앞으로도 ACC재단과의 협력 유통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6월 3일 주남아공한국문화원에서 개막한 '반디산책' 전시도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전시장을 찾은 현지 관계자들은 수준 높은 한국 현대 미술에 관심을 보이며 지속적인 문화교류를 희망하기도 했다.

로렌스 레마오나 남아공 큐레이터는 "전시에 참여한 한국의 작품들이 내용과 기술면에서 모두 너무 훌륭해서 이를 통해 한국 시각예술의 수준을 한 눈에 알 수 있었다"며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한국 작가들과 남아공 작가들의 지속적인 교류의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독일 베를린에 펼쳐진 '저항으로서 민중미술'

우리나라의 대중운동은 70년대 말에 민중미술을 중심으로 태동했다. 이후 조직화된 민중예술은 군부독재와 계엄령 선포에 반대하는 민중항쟁, 광주5·18민주화운동을 기점으로 확산했다.

민중화가 이상호·전정호는 군부독재에 맞서 민중미술 활동을 펼쳤던 작가들이다. 독일 베를린 마인블라우 프로젝트라움 갤러리에서 전시를 열고 있는 두 작가가 소식을 전해왔다. 특히 폭 6m에 달하는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를 중심으로 포즈를 취한 사진은 현장감과 아울러 이번 전시의 의미를 전해주었다.

15일 개막해 오는 7월 7일까지 진행되는 '저항으로서 민중미술'전은 독일Art15예술협회 유재현 총괄디렉터와 정현주 큐레이터(광주), 베른하르트 드라즈 큐레이터(베를린)가 기획을 맡았다.

정현주 큐레이터는 "우리와 유사한 분단과 통일의 역사를 지닌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상호·전정호 두 작가는 80년대 군부독재에 맞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예술가들"이라고 전했다.

유재현 디렉터도 "80년대 이후 활발하게 민중미술을 지향했던 작가들의 작품을 베를린에서 선보이는 자리"라며 "이들의 작품이 예술적 담론에 대한 공감과 연결고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시실 중심에 배치된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



민중화가 이상호(왼쪽)·전정호가 독일 베를린 마인블라우 프로젝트라움 갤러리에서 7월 7일까지 전시를 연다. 15일 개막을 앞두고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두 작가. (정현주 큐레이터 제공)

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는 지난 87년 현수막 그림 '백두산 기슭에서 새 날이 뜬다'를 새롭게 제작한 작품이다.

이상호 작가는 "이한열의 죽음과 6월 항쟁의 열기 속에 공동제작됐으나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수감되면서 이적표현물로 판결받아 소각되었다"며 "전시 작품은 2005년에 다시 제작된 것으로 통일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티브로 작품

을 형상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중화가 이상호·전정호 7월7일까지 마인블라우 갤러리

를 형상화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정호 작가는 "이번 베를린 전시는 국가폭력과 전쟁 그리고 환경파괴와 같은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잔악한 범죄를 고발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아울러 인간의 존엄과 생명을 경시하고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한 예술적 표현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젠더 브런치 영화제' 광주여성가족재단, 19일부터

샌드위치, 음료 등 맛있는 브런치를 즐기며 감상하는 '젠더 영화'.

광주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은 오는 19일부터 7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오전 11시 30분)마다 '젠더 브런치 영화제'를 진행한다. 재단 3층 북카페 은애실에서 열리는 '젠더 이슈'를 다룬 세 편 영화를 상영할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노경주 작 '안 할 이유 없는 임신'을 상영한다. 열 번이나 시험관 아기를 갖고자 도전했지만 실패한 부부 앞에 '남성 임신 기술'이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26일 만날 수 있는 '과회만사상'은 유재현 감독의 작품으로 우리나라 '성씨'를 다뤘다. 성씨가 멸종하는 시대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홀로 지내던 원룸에 세 여인과 한 명 남자가 찾아온다. 이들은 서로 남매지간으로 마지막 남은 '과 가(家)' 후손, 아버지 유산을 놓고 펼쳐지는 가족 코미디극이다.

끝으로 김지현 감독의 '워킹맘'은 7월 3일 관객들을 만난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싱글 워킹맘 '정희'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출산 현실을 지적하는 단편이다. 제10회 광주여성영화제 상영작.

무료 참여(브런치 제공). 재단 홈페이지에서 참가자 모집(선착순 30명).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KSA 한국표준협회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since 1982

-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